보도시점 (전매체) 5. 12.(금) 13:30

서울 광장시장 한일 교류 물꼬를 트다

- 일본 아메요코 상점가와 자매결연으로 세방화(글로컬) 시장으로 재도약

서울 광장시장 상인회(회장 추귀성)는 5.12(금) 일본 도쿄에서 아메요코 상점가 연합회(회장 호시노 이사오)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번 자매결연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지난 7일 기시다 총리의 답방 이후,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해 추진되었다.

광장시장과 아메요코 상점가는 자매결연을 통해 서로의 시장을 자국민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와 대표상품 판매촉진을 적극 지원하고, 성공사례 확산을 위한 상호 교차 방문 등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최근 온라인 쇼핑 등 유통환경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 세계인이 찾는 세방화(글로컬) 시장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기로 한 것이다. 양국의 두 상인회장은 “이번 자매결연으로 두 국가의 전통시장이 세방화(글로컬) 시장으로 활성화하는 첫 사례가 되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자매결연식에는 이영 장관도 참석하여 한일 전통시장 간 최초의 자매결연을 축하했다. 이영 장관은 “훈풍이 불기 시작한 한일 관계가 이번 전통시장 간 자매결연처럼 서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중소벤처기업부도 한일 교류촉진을 위한 민간의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	책임자	과 장	안원호 (044-204-7890)
		담당자	사무관	장수환 (044-204-7893)
			주무관	이지수 (044-204-789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한 · 일 전통시장 자매결연식 계획**

□ 행사개요

○ 일시 : ‘23. 5. 12(금) 12:00 ~ 13:50

○ 장소 : 아사히 신용금고 우에노지점 회의실(6층)

* 도쿄 다이토구 소재

○ 참석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광장시장 및 아메요코 상점가 임원진 등

- (광장시장) 추귀성 회장, 김영재 고문, 백운숙 사무국장
- (아메요코 상점가) 호시노 이사오, 다카야마 마사히로 외 2명

○ 주요내용 : 자매결연식, 기념촬영, 상점가 시찰 등

< 협약 주요 내용(안) >

- 자매결연 시장 자국민 홍보
- 시장 대표 상품 판촉 지원
- 상인 및 관계자 상호 교차 방문
- 교류 프로그램 운영

□ 행사 일정

일정		내용	비고
12:00~12:20	20′	■ 현장 순시	아메요코 상인회 부회장
12:20~13:30	70′	■ 오찬	장관
13:30~13:35	5′	■ 개회 및 인사말씀	아시히 신용금고
13:35~13:40	5′	■ 축사	장관
13:40~13:45	5′	■ 업무협약서(자매결연서) 체결	
13:45~13:50	5′	■ 선물교환 및 기념촬영	
13:50~13:51	1′	■ 폐회선언	